

# 우리가 걸어온 길

-50주년 졸업행사에서

서윤석(68)

함춘원 단풍이 일렁거린다

시계탑 분수대가 솟구친다

황소들의 발자국 소리에

독수리들의 날개짓 소리에

높은 구름이 춤을 춘다

담벽 뒤에서 시신屍身을 불태우던

당신들의 영혼에 감사한다

길러주신 상아탑에 감사한다

가슴을 흔들어대는

우리의 발자국 소리

우리는 슬퍼한다

떠나간 사랑을 슬퍼한다

먼저 가버린 정다운 벗들을 슬퍼한다

우리는 기억한다

같이 걸어가던 그 옛날 발자국 소리

조국의 산하山河가 흔들린다

풍진 세월 살아 남아

승리의 등불로 돌아온  
오디세우스 Odysseus 장군 보다 깨끗한  
훈장이 가슴에서 빛나는  
우리의 발자국 소리

살을 에이는 겨울이 되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외로움이 닥친다 해도  
떨리는 두 손을 모아  
하늘에 기도할 줄 아는  
우리의 영원한 발자국 소리